



## 스위스 하이킹 패키지 속속 출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곳은 바로 알프스

다시, 자연의 품으로

지구 한 바퀴 반을 걸을 수 있는 하이킹의 천국, 스위스

그룹 여행자들도 하루쯤은 자연의 품 속에 안겨 볼 수 있게

스위스정부관광청, 여행사들의 하이킹 패키지 개발 적극 지원

하이킹은 스위스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세계의 많은 여행자들도 하이킹을 위해 스위스를 찾고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9년 여름,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주제하에 '하이킹' 캠페인을 론칭했다. 4000m 급 알프스 봉우리부터 초록의 구릉지대까지, 정겨운 호반 산책로부터 고요한 산골짜기 너머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산 정상까지. 자연과 산은 스위스 하이킹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다. 스위스 전체에 촘촘하게 펼쳐진 하이킹 트레일을 이어보면 총 64,000km 가 넘는데, 이는 지구 한 바퀴 반을 걷는 것과 같은 거리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위스 사람들 못지 않게 하이킹을 좋아한다. 주말마다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등산객들만 봐도 그렇다. 마틴 니데거(Martin Nydegger) 스위스정부관광청 최고경영자(CEO)도 한국 사람들의 하이킹 사랑에 관심이 많다. 그는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들에게 산은 그저 바라보면서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원을 얻는 곳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자연과 산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예요."라고 말하며, "스위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매년 늘고 있다"고 얘기했다. "특히 하이킹을 즐기려는 중장년층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스위스를 방문한 대한민국 여행자들의 62.7%가 알프스 지역을 찾았고, 특히 최근 급성장 한 알프스 지역은 체르마트(Zermatt)지역이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스위스에서 즐기기를 원하는 것도 자연과 풍경이었다.

이에,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스위스에서 하이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와 코스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여행사들이 스위스 하이킹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룹 맞춤형 일정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여행사들도 올 여름 휴가용으로 하이킹 패키지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체르마트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선정된 알레치 빙하, 라보 포도밭을 하이킹하면서 알프스 스파와 풍뎉, 골든패스 파노라마 기차를 체험하는 7박 9일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내일투어에서는 스위스 하이킹 코스 베스트 7을 선정해 6가지 하이킹 인솔 패키지 및 자유여행 패키지를 출시했다. 에벤알프, 쉴트호른, 라보, 체르마트, 리기, 필라투스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킹 코스를 원하는대로 골라 체험해 볼 수 있다.

헤초여행은 11일짜리 스위스 알프스 자연기행 상품을 출시했는데, 리기, 쉴트호른, 체르마트를 비롯해 랭크 지멘탈, 에모송 댐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찾아 자연의 깊은 품속을 걸어볼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해서 눈길을 모은다.

**Switzerland Tourism.**



스위스정부관광청 김지인 소장은 “우리나라 그룹 여행자들도 여정 중 하루쯤은 걸으며 나를 발견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자연을 오롯이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위스 자연의 품에 담백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며 최근 출시되고 있는 스위스 하이킹 패키지들을 반겼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http://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